

“20~30대 인구 지키기·유입이 출산 장려보다 중요”

전남도 '인구 감소 지역 발전전략' 세미나

전남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 농산어촌 기반시설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며 출산보다는 20~30대 인구 지키기와 유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 감소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 지역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

청년층·읍면시군 소멸 위기 “출산·보육·일자리 등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 필요”

안을 모색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 연구실장은 '지자체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 분석 및 전남의 정책현황',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구관점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 사례' 기초발표를 했다.

박 실장은 발제를 통해 지방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 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고소화 현상 등으로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절박함을 제기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추진 방안으로 ▲축소지향 지역발전정책 전환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연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진단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 등 4가지를 들었다.

신동훈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현황에 맞는 인구 유입 및 고령인구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육아정책 수립, 고령인구 일자리와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집약형 공간구조의 재편 방향과 전략 ▲지방소멸 대응 지역 활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 청년 정착 방안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및 20~30대 인구 지키기와 유입 방안 ▲지역산업의 거점화 및 다품종 소규모화 등 5개 정책 방안이 제안됐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 해결 없이는 전남의 미래도 없다”며 “실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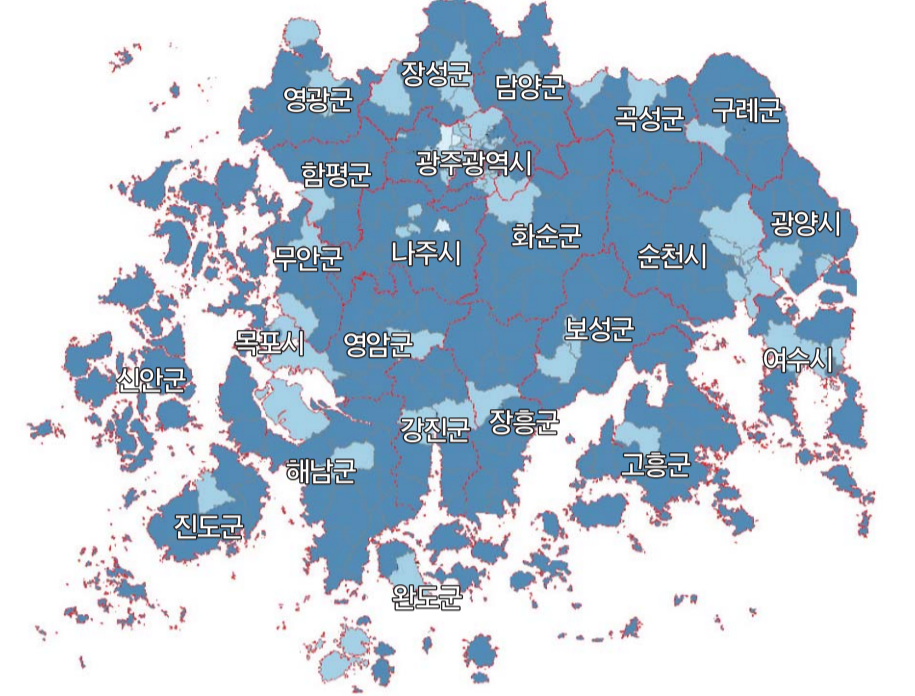
한편,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만큼 인구 위기다. 2014년 8월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3월 말 기준 인구 190만 명이 붕괴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인구는 189만6000명으로, 1970년 330만명 대비 42.8%(141만3000명) 줄었다.

전남도가 예측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전남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현재보다 10만명 이상 더 줄어든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연구’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이 중 고흥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읍면동 소멸위험지수

전남 범례 (Total : 297개소) <2040년>			
1.0이상	소멸 저위험 지역(0개소)	0.5미만	소멸 위험 진입 지역(67개소)
1.0미만	소멸 주의 지역(1개소)	0.2미만	소멸 고위험 지역(229개소)



문대통령 “경제 성장판 지역에 있어... 지역경제 회복 시급”

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주재 “새 경제부총리에 기대 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에 전북, 11월에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지역기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며, 특히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 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화, 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견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 해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며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서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한 팀이 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임 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참여정부 시

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다”며 “행정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부터 지역 활력을 알리는 힘찬 출발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타임지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

트럼프·카슈끄지 등과 올라 김정은 위원장 올해는 빠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주역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오랜 전통인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에 올랐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올해의 인물에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 이른바 부모-자녀 격리 수용 정책을 상징하는 ‘격리된 가족들’도 후보에 선정돼 눈길을 끈다.

타임은 10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투데이 쇼’ 프로그램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 10명’ (단체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타임은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 올림픽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초청한 이후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3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회담을 중개했다”고 소개했다.

집권 2년 차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무러 특검이 후보 명단에 올랐다.

또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가 고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밝히고, 상원 청문회 출석해 증언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도 올해의 인물 후보에 포함됐다.

지난 10월 이스탄불 주제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지난 2월 17명이 숨진 플로리다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를 요구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시위를 벌인 생존 학생들도 후보에 뽑혔다.

흑인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알리며 열렬한 지지를 받은 영화 ‘블랙 팬서’의 감독 라이언 쿨러와 할리우드 여배우로 지난 5월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 왕자비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6월 세기의 회담으로 불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잇단 핵·미사일 시험과 트럼프 대통령과 거친 ‘말의 전쟁’을 벌인 지난해에는 핵 위협을 각인시켰다는 이유로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었다. /연합뉴스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미대: 430-8801